

전북자치도, 위기 청년 지원 본격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위해 10개 기관과 협약 맺어... 청년미래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돌봄·사회 복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위기 청년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위기 청년 발굴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0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전북 사회서비스원의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 청년허브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 지부 등 청년 지원 및 복지에 앞장선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취약 청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약 기관들은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연계, 정신건강 및 법률 상담 지원 등 다각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미래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센터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가족돌봄 청년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센터는 심리 상담, 자조모임, 일상 돌봄 서

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사회관계 회복과 간단한 일 경험 제공 등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11월 21일부터 3주간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협약식에서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의 힘을 모아달라”며, “주변에 힘든 청년이 있다면 청년미래센터로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미래센터는 13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상담 및 지원 신청은 전화(063-901-1399) 또는 청년미래센터 블로그와 복지부의 ‘청년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전북, 수소산업의 중심으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총력

산업부·한국수소연합 등 13개 기관·기업, 간담회 개최... 수소기업 애로사항 청취·성장단계별 지원책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예비수소전문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제1회 수소전문기업 발전포럼의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소연합, 전북테크노파크, 도내 수소기업 13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는 한국수소연합의 발표로 시작했다. 발표는 수소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산업기반(인프라), 규제 완화, 해외 진출 등 수소기업 육성과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을 포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예비수소전문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지자체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2019년 전북 1호 완주 수소충전소 착공을 시작으로 △수소 도시 조성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등 10여 개의 수소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대규모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시제품 제작, 인증·특허, 상담(컨설팅) 등 수소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포함해 수소 인프라 확충, 기술사업화 지원 등으로 도내 수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데이터 산업혁신으로 새로운 경제도약 출발 알렸다

전북자치도가 데이터 산업혁신으로 새로운 경제도약의 출발을 알렸다.

도는 26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서난이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

최했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센터장 최대규)에서 운영을 맡아,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

북을 데이터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는 웰케어(식품·의료·복지), 공간정보 등 전북의 특화 산업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산업 융합을 촉진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특히, 질병 예측 및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농작물 관리의 정밀화와 농업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과 도민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빅데이터보다 활용도가 높은 가명정보를 기반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탄소복합재로 만든 소형선박 바다에 띄운다

도-중소벤처기업부-군산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탄소복합재 소형선박 제조·운영 실증 완료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군산 오식도동에서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제조 및 운영 실증을 주제로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했으며,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활용한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선 제작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3톤급과 7톤급 선박이 FRP 두께의 80%로 제작됐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소 두께 20% 경감 적용을 승인받았다. 2023년 말에는 500시간 이상의 운항 실증을 완료하여 경량화와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9톤급 선박의 건조 완료 성과도 발표했다.

CFRP를 적용한 소형선박은 FRP 대비 20% 경량화와 약 2.8배의 강도 향상 실증 데이터로 확인했으며, 연료 절감 효과와 안전성 강화 측면에서 새로운 조선산업 생태계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길 전북자치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의 강점인 탄소소재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소형어선 제조사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 해수부와 협의해 탄소보강재 적용 가능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여성폭력 추방주간 맞아 연합 캠페인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 여성폭력 심각성·예방 중요성 홍보

전북자치도는 여성폭력 추방주간(지난 25일~12월 1일)을 맞아 26일 한옥마을 인근에서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다짐하는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북자치도와 전북경찰청(덕진·완산경찰서),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하며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여성 폭력 추방 주간의 슬로건을 제창하며 시민에게 전단지와 홍보물을 배포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한옥마을 인근 공공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며 실질적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여성폭력 추방주간은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정됐으며, 올해는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폭



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북자치도는 여성 안전지역 연대사업을 통해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폭력에 노출된 경우, ‘여성 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쉼터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힘쓰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지부장 오영석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